정 일 영
한국사료협회회장

원자재 가격상승과 대응방안

사료원료 가격상승,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원자재 가격상승이 끝을 보이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사료원료 뿐만 아니라 원유, 철강, 원목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큰 원인이 중국의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계 원자재 수요가 중국으로 집중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료원료의 가격상승은 여타 원자재에 비해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과 사료산업을 궁지로 몰고 있다. 주요원료인 옥수수의 경우 최근의 사료업계 구매가격이 톤당 190$대를 넘어서고 있고 대두박 역시 380$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평균 수입가격에 비해 각각 64%, 75%나 상승한 것으로서 경험한 바 없는 사상초유의 고곡가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료원료 가격상승의 원인은 크게 사료원료의 수급불균형과 해상운임의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2004년의 세계 또는 주요수출국들의 사료곡물수급 상황을 보면 전체적인 생산량이 다소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원료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고량 및재고율이 감소하고 있는데이는 소비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의 가장 큰 수입시장이던 중국이 03년 10월 중순 이후 곡물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미국산 곡물가격 상승을 더욱부추기고 있다. 아울러 2000년이후 유럽의 광우병 발생 이후 과거 동물성단백질 원료가 식물성단백질 원료로 대체 사용되면서부원료 가격상승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두박을 제외한 야자박, 면실박 등의 경우는 주요 수입국인 동남아시아의 자국내 수요증가로 수입물량 확보마저어려운 실정이다.

원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별 해상 선박운임료(Freight)는 미국이 75 80$/톤, 중국이 16 18$/톤 수준으로 03년초에 비해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에 따른 원자재수요가 급증하면서 선박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지금과 같은 사료원료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의 사료원료 식부상황이 호전되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중국의 단기적이고 폭발적인 선박수요 급증으로 인한 선박확보의 다소 투기적 요소의 안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향후 식량의 생산증가가 세계적인 수요증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장기전망과 병행해 최근 수년간 세계적인 곡물메이저들의 독과점적 재편 등의 영향으

로 세계 곡물시장에서의 투기적 요소가 진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산물의 특성상 수급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에는 최소한 일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더욱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원료가격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해상운임(船賃)이 빠른 시간내에 안정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료가격의 강세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료의 실질수입의존도가 95%, 배합사료 제조비용중 원재료비 비중이 85%에 달하는 사료제조업의 특성상 여타 경영요소의 합리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사료산업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료제조업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아울러 사료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고비용 정책구조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사료업계는 자구노력을 통해 현재 원료별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 수입국을 다변화 시켜나가야 함과 동시에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신규 사료자원의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사료업계의 국내항도착도(CFR) 기준 원료구매 형태에서 수출국 본선 인도가격(FOB) 구매형태로 전환해 6개월 또는 1년간의 수요선박 장기계약을 통해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원료 수입가격 인상요인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만하다.

아울러 사료원료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6개월 1년전의 장기구매 방안이 있으며 이는 향후 원료가격 및 해상운임의 등락에 따른 리스크 분산 차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자구노력과 아울러 현재의 고비용구조 정책도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우리 나라의 사료원료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0% 5%가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배합사료와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높여 우리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수입축산물에 의해 국내시장 잠식을 촉진시켜 축산업 생산기반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국내 사료자원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원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보다 현저히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수입량이 감소될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으로,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이미 국내 원료산업을 보호하는 보호관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무역자유화 정책시행 등 제반여건상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축산업과 양축농민에게 세(稅)부담을 지우는 財政關稅(관세수입)로서의 역기능만을 낳고 있는 것이다.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과 함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부가세의 이중과세(二重課稅)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의 방지를 위해 원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 상당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옥수수 등 곡류원료와 소맥피, 미강 등이 이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77년 당시 10/110(9.09%)의 공제율이 지속으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는 2/102(1.96%)이 적용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같이 공제율을 하향조정의 주된 이유는 '95년 이후 배합사료(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축산물의 경쟁력제고와 축산농민의 세부담(稅負擔) 경감을 목적으로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나서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정책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에 부응하면서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산업에 대한 간접지원(세금감면 등)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은 이에 부합되는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축산업 지원정책으로 판단된다.

관세 및 부가세 등 세제면에서의 정책개선과 아울러 현재 사료용도로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원료들에 대한 수입 · 사용 제한요소들도 없애 나가야 할 것이다.